

# “의병기념공원 건립 요건 확보돼야”

### 익산시, 민간단체 사업 제안... 자부담·부지확보 선행되어야 예산 지원 가능

익산시가 지역 민간단체가 제안한 의병기념공원 건립사업은 필수 요건이 우선 확보돼야 추진 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시는 의병기념사업회가 의병기념공원 건립을 위한 예산 지원을 시가 고의로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구체적인 설명에 나섰다.

의병기념사업회는 지난 2017년부터 민간현충시설인 익산의병기념공원 조성사업을 구상해왔으며 해당 사업은 부지 매입비를 포함한 총 98억원이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총 사업비의 28%

에 해당하는 27억7천여만원을 시 보조금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사업추진 필수 요건인 '자부담'과 '부지 확보'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됐고 기재부 예산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현충시설 관리지침에 따르면 현충시설 건립과 관련한 국고지원 대상은 사업 주체가 민간이며 민간에서 부지확보와 자부담 70%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총 사업비의 30% 내에서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시는 사업화와 수차례 건담회를 갖

고 공문발송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안내했다. 지난 3월에는 시와 사업회, 전북서부보훈지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담회를 열고 부지확보와 자부담 확보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편성이 불가함을 알린 바 있다.

시는 필수 요건인 자부담과 부지확보 문제가 해소되면 철저한 검토와 절차를 거쳐 의병기념공원 건립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 대책 마련을”

### 송미숙 군산시의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0일 제2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송미숙 의원은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오는 여름부터 삼중수소 등 방사성 핵종이 포함된 오염수 약 140만 톤을 안전 기준 이하로 희석시켜 2051년까지 약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연간 14만 7천 톤, 30년이면 무려 약 441만 톤의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태평양, 동중국해를 따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5년 안에 방사능 오염수가 국내에 유입되게 된다"며 "원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트리튬), 세슘 134·세슘 137, 스트론튬 90 등의 방사성 핵종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삼중수소(트리튬)는 유전자 변형, 발암 등을 세습을 불임증, 전신마비, 골수암, 폐암 유발을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스트론튬-90은 체내에서 칼슘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뼈 등에 축적되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특히 유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는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 AFS)로 원전 오염수를 정화 처리하고, 비탄포로 희석한 후 농도를 낮추어 배출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삼중수소는 AFS로 제거될 수 없고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면, 해양오염과 함께 어패류에 농축된 방사능이 어류 섭취를 통해 체내로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국과 태평양연안국 및 전 세계에 대한 또 다른 핵참사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면 방사능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오염과 수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일본 현재 어민과 시민단체까지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강력한 철회를 주장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공공기관 유치 실무추진단 본격 가동

익산시가 공격적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시는 20일 공공기관 유치 실무추진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공공기관 유치 실무추진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지원반 및 분야별 5개 유치추진반(산업·경제반, 농생명·환경반, 문화·체육반, 건설·교통반, 복지·교육반)으로 구성된다.

유치대상 공공기관별 유치전략을 논의하고 유치 활동을 점검하는 등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추진 경과와 함께 정부와 전북도의 공공기관 이전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담당 공공기관별 유치 활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고 5월 중 실무추진단과 더불어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추진단을 별도 구성 공감대를 넓혀갈 방침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학사구조개편 완성 '글로벌대학30' 대학대 전환 가속

### 군산대, 데이터기반 2차 개편 전공 장벽 허물고 산업수요 대응 애자일(Agile) 교육혁신체계 기반구축

2022년 4월 전체교수회의에서 데이터기반 1차 학사구조개편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강도 높은 개편작업을 단행해왔던 국립군산대학교가, 18일 2차 학사구조 개편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글로벌대학30'으로의 고강도 대학대 전환을 가속하게 되었다.

18일 개최된 2023학년도 제2차 전체 교수회의 결과 군산대학교는 4개 학부 7개 학과를 11개 학부 11개 학과로 확대하고 2024학년도부터는 15개의 특성화 대학부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로써 군산대학교는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자율전공학부, 법행정경찰학부, 경영학부, 간호학부, 건축공학부, 사회복지학부, 체육학부, 회계학부, 공간디자인융합기술학부, 미디어문화학부, 아동학부, 의류학부, 첨단과

학기술학부, 해양경찰학부 등 15개 학과를 11개 학과로 축소하고 ICC(산업협업특화센터: Industry-Community-Coupled Cooperation Center) 기반 특성화 대학부에는 산업의 빠른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교육체제로, 대학특성화, 지역전략산업 및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생방향 상상 가치 기반의 산학협력을 체질화해 예비단계, 확산단계, 정착 단계 및 사업단으로 지원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학과 간, 대학과 지역사회 간, 국내 및 해외의 경계를 허물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글로벌대학30'에 걸맞다.

제1차 학사구조개편에서는 교육수요자인 학생 선택권 강화 및 특성화와 융합교육으로 사회 수요에 적합한 교

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7개 단과대학을 HASS대학(Humanities, Arts and Social Sciences)과 UNSE대학(Ocean,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으로 통합, 산업협업특화센터(ICC) 기반 특성화 대학부를 본부 직속으로 신설해 2개 단과대학 8개 학부 35개 학과 시스템을 구축했다.

제2차 학사구조 개편안은 최근 3년간 간 임시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학생 소구력 지수(교육수요자의 전공요구 지수)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여 효율성과 혁신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학사구조개편위원회, 교수회의, 대학평의회, 전체교수회의 등 여러 차례 학내 전 구성원 의견수렴 및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는 등 구성원의 동의라는 동력이 더해졌다.

/군산=이재춘 기자

# “군산항 근본적 준설방안 마련해야”

### 한경봉 군산시의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0일 제2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군산항의 근본적 준설방안 마련'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한경봉 의원은 "개항 124년이 된 군산항은 도내 유일의 무역항으로 군산은 물론 전주·익산·김제 등 도내 소재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적은 물류비용으로 전 세계에 유통할 수 있는 도내 유일한 통로이다"라며 "특히 거대한 중국 시장이 최단 거리에 있는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군산항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항 수출입 물동량은 2186만 톤, 전국 물동량의 1.4%에 그쳤으며 실적으로는 14개의 국가관리무역항 중 11번째에 머물렀다"며 "그 이유는 군산항의 낮은 수심 때문에 준설에 준설하는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의 80%, 수입 물동량의 40%가 군산항 대신 다른 항만에서 처리되고 있어 물류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산항은 5만 톤급 2개 선석이 위치한 7부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두가 2~3만 톤급에 그치고 있고 5만 톤급 부두조차 계획 수립 14m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군산항의 경쟁력 약화는 심각한 토사 매몰 현상의 지속과 이에 따른 낮은 수심으로 기인하며 대형선박 유치는 물론 신규항로 개척에도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간 상시 준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 왔으나 통상적인 정부 예산으로는 군산항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산항은 항만법 상 국가 무역항이며 정부가 운영·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법정 항만인 만큼, 정부에서 준설예산을 증액하고 상시 준설체계를 구축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 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산항이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전복 경제를 이끌며 중국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관문이라는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 국제복합운송 거점항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성료

군산시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시는 20일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군산월명체육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행사는 군산시 후원으로 시군장애인연합회(회장 김종백)에서 주관했으며, 장애인 및 가족 그리고 군산시민 1,400여 명이 참석했다.

은파어린이 합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복지발전 및 권익증진에 기여한 민간인과 공무원 58명에 대한 표창과 감사패를,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38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군산시장애인연합회 회원단체들이 일 년간 실시한 반 모은 성금으로 10명(각 20만원) 그리고 (재)군산사회복지장학회(이사장 김기봉)에서 장애인단체 13개소 각 2명씩 총 26명(각 30만 원)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의회, 원광대와 업무협약 체결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은)는 20일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와 원광대 총장실에서 지방의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익산시의회 최종은 의장, 한동연 부의장, 전병희 의회사무국장, 원광대 학교 박성태 총장, 황진수 부총장, 유병남 대외협력처장, 이동기, 박민정, 임흥래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원광대학교 학생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서에는 △지방의회 전문인력 양성과정 공동 추진 △지방의회 모의대회 운영 등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최종은 의장은 "이 교육과정을 통해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양성되어 익산시의회 발전은 물론 나아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하며, "인재 확보뿐만 아니라 의원의 전문성 강화에도 힘써 더 나은



선진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의회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을 제안한 원광대 행정학과 이동기 교수는 "지방의회가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와 의정여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